



‘KS 만루 사나이’ 김태군, MVP까지 노린다

한국시리즈서 생애 첫 그랜드슬램
“식물 타자 아니라는 것 보여줬다”



“프로 통산 첫 만루 홈런이 중요한 경기에서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팀이 우승을 하고 제가 MVP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시리즈에서 만루 사나이에 등극한 ‘태군 마마’ 김태군이 우승 반지와 함께 MVP 트로피에 도전한다. 우승 포수와 한국시리즈 MVP라는 타이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시선을 180도 바꿔놓겠다는 각오다.

KIA타이거즈 김태군은 지난 26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만루 홈런을 터트리는 등 4타수 2안타 4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치며 9-2 대승에 앞장섰다.

4차전 MVP로 선정된 김태군은 이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커리어 첫 만루 홈런이 한국시리즈라는 중요한 경기에서 나와서 너무 좋다”며 “치는 순간 넘어간다는 건 확신했다. 제발 휘지 말라고 속으로 열댓 번은 빌었는데 홈런이 돼서 정말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타구가 파울이나 페어냐의 기로에 섰던 만큼 김태군의 홈런은 좌측 담장 가장 깊숙한 코스로 넘어갔다. 비거리는 122m, 라이온즈파크 관중석까지 넘어 장외로 향한 대형 홈런이었다. 또 김태군은 이어진 타석에서 안타를 추가하며 이번 한국시리즈 타율을 3할8푼5리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4년에서 5년 전부터 타격적으로 스스로 너무 낮아졌다. 주위 시선들도 다 그랬다”며 “더 이상 제가 식물 타자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말하고 싶었다. 스스로 흑독하고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 과정이 변화로 나타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KIA는 3승 1패로 V12에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선 네 경기에서 김태군이 모두 선발로 포수 마스크를 썼고, 이중 세 경기를 풀타임 소화한 만큼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에도

안방을 지킬 확률이 높다. NC다이노스 소속으로 우승 반지를 낀 2020년에는 양의지의 백업 포수였던 아쉬움을 완벽히 털어내는 것.

그는 “1승만 하면 우승 포수가 된다. 우승 포수가 되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찰 야구단에 갔다 오니까 백업 포수라는 시선이 있었다. 이 시선에 대해서 항상 분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우승 포수가 꼭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역대 한국시리즈에서는 네 차례 만루 홈런이 나왔는데, 이 주인공들이 속한 팀이 모두 정상에 올랐다. 만약 이 우승 공식이 이어진다면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공수 모두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김태군이 만루 홈런의 임팩트까지 더하며 MVP에 등극할 가능성도 높다.

김태군은 “팀이 우승을 하고 제가 MVP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야구 인생에서 세 번째로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다. 프로 지명받을 때 제일 좋았고, KIA로 트레이드 됐을 때가 두 번째였는데 이번이 그 다음이다”며 미소 지었다.

대구=한규빈 기자 gyu bin.han@jnilbo.com

‘우승까지 1승’ 이범호 KIA 감독 “5차전도 냉정한 운영” 세계新·한국新에 다관왕까지… 광주·전남 ‘메달 잔치’

4차전까지 3승 1패
안방서 마침표 도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됐다. 한국시리즈 11전 전승의 전설, KIA타이거즈가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열두 번째 우승에 단 한 발자국만을 남겨뒀다.

KIA는 지난 26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9-2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KIA는 4선승제인 한국시리즈에서 3승 1패를 기록했다.

이범호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형우가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을 하면서 경기에 들어갔는데 다른 선수들이 해줘야 할 일들을 모두 해줬다. 최형우도 벤치에서 응원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려줬다”며 “대구에서 경기를 잘 치렀으나 광주에 돌아가서 잘 마무리하겠다”고 총평했다.

KIA는 이날 경기 초반부터 상대 선발 원태인을 적극 공략하며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 2.1이닝 동안 7구를 소화한 원태인은 6피안타와 3사사구를 허용하며 6실점을 내줬고, 어깨 통증까지 겹치며 3회를 넘기지 못한 채 조기 강판됐다.

이 감독은 “박찬호와 김선빈의 테이블 세터진이 공을 많이 던지게 만들었다. 원태인의 구위가 좋아 보였는데 낮은 공들에 안 속으면서 투구 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며 “1차전에서 타선이 공격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낮은 공들을 잘 잡고 파울도 만든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이 감독이 토종 에이스인 원태인의 저격수로 낙점한 변우혁은 2회초 원태인과 처음이자 마지막 맞대결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이후 바뀐 투수들을 상대로도 4타수 무안타에 그쳤으나 안정적인 수비로 힘을 보탤다.

그는 “변우혁이 안타를 못 쳤지만 충분히 자기 몫을 해줬다”며 “팀이 이기는 것이 첫 번째다. 공격이 야구가 전부가 아니고 수비와 주루까지 최고의 컨디션으로 해주는 게 선수의 몫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1차전에 선발 등판한 뒤 서스펜디드 게임 선언과 우천 취소로 나흘 휴식 후 마운드에 오른 제임스 네일은 5.2이닝 6피안타(1피홈런)와 1사사구로 2실점만을 허용하며 에이스다운 위력투를 펼쳤다.

이 감독은 “네일이 5회가 끝나고 힘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바꿔 달라고 해서 세 타자만 더 던져달라고 부탁하고 김영웅에 맞춰서 이준영을 준비했다. 5차전은 휴식을 취한다”며 “불펜에 좋은 선수들이 많고 상황과 계획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6~7차전까지 가면 잘될 수 있기에 다른 생각 않고 냉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한규빈 기자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일차… 27일 오후 5시 기준
광주 7위 금 41·銀 36·銅 28
전남 6위 금 29·銀 36·銅 49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25일 경남 일원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3일차인 27일까지 광주와 전남 선수단이 세계신기록과 한국신기록, 다관왕 등을 배출하며 메달 레이스를 힘차게 이어가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현재(오후 5시 기준) 금메달 41개와 은메달 36개, 동메달 28개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7위,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29개와 은메달 36개, 동메달 49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6위에 올라 있다.

광주 선수단은 세계신기록 1건과 한국신기록 10건, 대회신기록 3건, 전남 선수단은 한국신기록 4건을 작성했다. 또 광주 선수단은 3관왕 3명과 2관왕 10명, 전남 선수단은 2관왕 7명을 배출했다.

광주광역시청 사격팀은 세계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박승우와 임주현, 김근수, 박동안은 지난 26일 사격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 SH2에서 1902.2점을 합작하며 금빛 총성을 울렸고, 종전 기록인 프랑스의 1898.3점을 3.9점 높였다.

역도에서는 선수부 1명과 동호인부 2명 등 무더기 3관왕이 쏟아졌다. 선수부의 박종선(한국알프스)은 지난 25일 남자 -54kg급 벤치프레스종합과 파워리프팅, 웨이트리프팅을 모두 석권했다.

동호인부에서는 임주성(광주카리타스 보호작업장)이 지난 25일 남자 -54kg급



광주·전남 선수단이 지난 25일 오후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입장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지적) 파워리프트종합과 스쿼트, 데드리프트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지난 해에 이어 다시 3관왕에 올랐고, 김동현(광주시장애인역도연맹)은 27일 남자 -92kg급(청각) 파워리프트종합과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싹쓸이했다.

파리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 첫 메달의 주인공인 사격의 이윤리(완도군청)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금빛 낭보를 전했다. 이윤리는 지난 26일 여자 공기소총 입사 R2 개인전 SH1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혼성 공기소총 복사 R3 단체전 SH1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선수단은 카누에서 3회 연속 종합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김광현(전남카누선발팀)은 지난 26일 남자 카약 200m 스프린트 KL1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27일 남자 바아 200m 스프린트 VL2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손영숙(전남카누선발팀)은 지난 26일 여자 카약 200m 스프린트 KL2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뒤 27일 여자 바아 200m 스프린트 VL3에서는 금메달의 쾌거를 이뤘고, 신경문(한국농어촌공사)도 지난 26일 남자 카약 200m 스프린트 KL2에서 은메달을 보냈다.

한규빈 기자